

6개국 69개 갤러리 즐거운 미술축제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 광주 17'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행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9월 28일~10월 1일 DJ센터서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 17'

즐거운 미술 축제가 열린다. 여유가 된다면 그림 한 점 구입해도 좋지만, 그냥 전시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그림들을 감상하며 안목을 키워 가는 것도 좋다.

제8회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 광주 17'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열린다.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던 행사는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일정이 겹치면서 기존 행사장소였던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옮겨 진행된다.

'아트: 광주 17'은 일반적인 아트페어의 상업성과 함께 공공성을 지향하는 문화장터다. 전통적인 아트페어에서 만날 수 있는 갤러리 부스와 함께 작가 개인 부스, 각종 특별전과 기획전 등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갤러리 부스는 모두 69개가 운영된다. 이 중 해외 갤러리는 5개국 18개다. 중국 789예술지구에 위치한 양갤러리와 프랑스 프랑수아즈 리비네 갤러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며 미국 낸시 투메이 파인아트, 영국의 폴티고 갤러리 등이 새롭게 포진했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와 행사가 맞물리면서 해외 갤러리 참여가 많았지만 올해 참가팀이 줄어든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내 갤러리는 모두 51개가 참여한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6개 곳이 참여했던 데 반해 올해는 갤러리 봄, 이화갤러리, S갤러리 등 10개가 부스를 열었으며 서울·경기 지역 21개 갤러리를 비롯해 부산, 대구, 전남 지역 갤러리가 참여했다.

3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개인 작가 부스는 지난해보다 21개가 늘어난 136개가 운영된다. 정송규·박주하·송필용 등 지역 작가 107명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참여했다.

패기 있는 청년작가들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작가'전은 올해도 이어진다. 30년 역사의 '광주청년작가회' 회원 등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美·英·中 갤러리 등 참여 개인 작가 부스 136개 운영 청년작가전 60명 작품 출품 '남농·아산'전 등 기획전도

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 60명이 참여하는 부스 12개를 운영, 신선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기획전도 눈길을 끈다. 전통수묵화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이뤘던 문인화의 거장 남농 허견(1908~1987)과 아산 조방원(1926~2014)의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남농 아산'전이 열리며 무등산 분청사기, 강진청자, 옷칠공예, 현대공예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예향공예명품전'도 진행한다.

민화전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서울 가화박물관 소장품과 호남민화사랑회 작가 작품들을 볼 수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11개 도시 초대작가전도 기획중이다. 특별전으로는 올해 광주시와 우호교류도시 10주년을 맞은 '중국 우한시 특별전' 등을 협의하고 있다.

부대행사로는 판화체험(정이석), 금속공예 체험(정 참), 염색체험(최희영), 예코백 실크스린 체험, 우드 사진액자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밖에 다양한 아트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트숍과 미술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아트나우, 다양한 붓을 전시·판매하는 골든 브러쉬 등 미술 장터도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션갤러리 참가 작가인 토마스 라마두 작품.



칼리파 갤러리와 참여하는 허욱 작가의 작품.

'물빛으로 담다'

전남옥과미술관 9월 7일까지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초청전

맑은 수채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도립 전남옥과미술관은 지역 대표 수채화 그룹인 광주·전남수채화협회(회장 한부철)를 초청, 오는 9월 7일까지 아산 1실에서 초대전을 개최한다.

'물빛으로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김효삼·김근희·권진용·김수옥·김종안·김종호·김희남·나안수·류신·실상호·송정희·염순영·오관영·이준성·전병문·한태희씨 등이 참여한다.

두터운 질감의 유화 작품과 달리 수채화는 투명하고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상쾌하다. 작가들은 치자꽃과 세잎 클로버를 소재로 삼기도 하고, 세월과 함께 늙어 가는 어느 부부, 농사 짓는 아낙, 봄을 만끽하는 아이들의 풍경 등 삶의 모습을 화폭에 옮겼다. 또 하화도 풍경 등 아름다운 전라도 사계도 담았다.

지난 2001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로 구성된 광주·전남수채화협회는 다양한 기획전과 교류·초대전 등을 진행해왔다. 문의 061-363-727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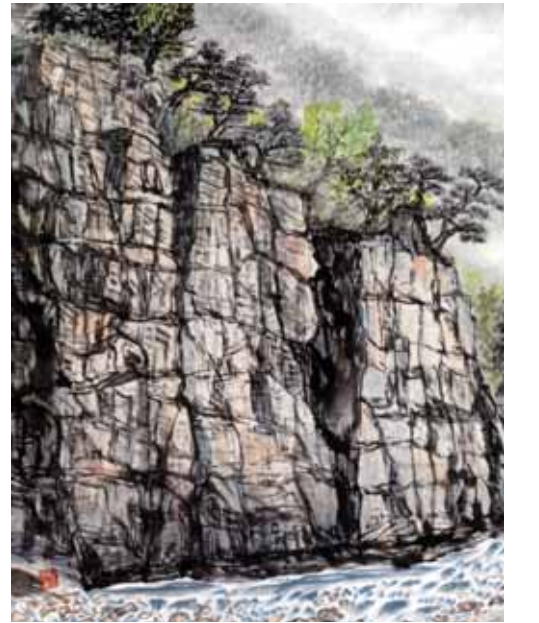


한부철 작 '담다'

한국화 모임 '산목회' 창립전 4~16일 자미갤러리

한국화 모임 '산목회(山墨會)' 창립전이 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산목회'는 전남대 평생교육원 한국화반에서 정산(丁山) 백현호 선생의 지도를 받은 회원들의 모임에서 출발했다. 매년 '한국화 한마음전'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열어오던 회원들은 지난해 14번째 기획전을 마무리 한 후 정식으로 모임을 꾸리기로 하고 창립전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강장원·김상인·김선부·김영의·나연나·류희남·서병운·설수정·박성현·백계철씨 등 모두 23명이 참여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을 선보인다.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 흰 눈 날리는 산사의 모습, 신비한 운무에 휩싸인 산, 짙푸른 녹음이 인상적인 숲속 풍경 등을 수묵담채로 그려낸 작품들과 연꽃, 모란 등 화려한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오픈식은 4일 오후 6시다. 문의 062-410-83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운 작 '사인암'

문화전당 청소년 자원봉사 'ACC 팀즈 서포터즈'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 이하 ACC)은 여름방학 중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ACC 팀즈(TEENS) 서포터즈'를 오는 20일까지 약 3주간 운영한다.

작년부터 운영하는 'ACC 팀즈 서포터즈'는 ACC투어 해설사, 전시해설 도슨트, 고객안내, 어린이체험관 도슨트, 어린이체험관 문화교육가 등을 보조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중·고등학생들

로 구성돼 있다.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기본교육을, 2주차에는 현장 보조·지원을 통해 멘토링 활동을, 3주차에는 배정된 직업군에 대한 1일 직업 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 동안 작성한 일지와 사진을 담은 에세이집을 발간하며 소정의 활동비, ACC 공연 및 전시 할인, 기념품 증정 등이 주어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Shin Yang Park Hotel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로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십니다!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수영장

노래방 한식당